

# 지상진료실

## 망상형 편평태선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승우 · 김연중

편평태선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적자색의 작고 평탄하며 다각형(polygonal) 형태의 구진들이 특징적으로 존재한다. 구진 표면에는 명확한 회백색선이 관찰되는데, 이를 Wickham's 선조(striae)라 한다. 신체의 굴면(flexor surface), 예를 들어 손목에 호발하고, 병소는 일반적으로 대칭적이다. 구강점막에도 흔히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역학조사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인도의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85,000명을 검사했을 때 구강편평태선의 유병율은 0.02%에서 1.5%로 다양하였다. 스웨덴에서는 구강편평태선

의 여성에게서 호발하였고, 또한 편평태선의 구강병소는 임상적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8종류로까지 구분되기도 한다. 앞으로 수차에 걸쳐 망상형(reticular), 반상형(plaque), 위축형(atropluz), 미란형(erosive, 수포형(bul-lous)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흔한 종류는 망상형으로, 여기서 보이는 것은 67세 여성의 우측 협점막에 발생한 예이다. 특징적 소견은 서로 얽힌 흰선, Wickham's 선조로 격자모양(latt-ize-work)이나 고리모양(annular)으로 배열되어 있다.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협점막이다.

